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5월 10일(일) 제1588호



부모맞춤전도여행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 ‘기차는 행복을 싣고’

전도사역본부 청풍리조트로 부모맞춤전도여행  
5월 25일 오전 9시 서울역 출발 ... QR코드로 참가신청

전도사역본부에서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로 ‘부모맞춤전도여행’을 떠난다. ‘기차는 행복을 싣고’를 주제로 5월 25일(월) 오전 9시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기차 안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포스트잇 편지 쓰기, 가족사진 찍기, 가족 사연 방송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포스트잇 편지와 가족사진을 청풍리조트에 전시하고, 기차 방송실을 이용해서 신청곡과 사연도 소개할 예정이다. 청풍리조트 연회장에서는 식사와 콘서트, 여성민 목사의

메시지, 결신 카드 작성, 산책 등을 한다. 가수 이무송 집사와 가스펠싱어 지미션,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세례식은 청풍리조트와 귀갓길 기차에서 한다.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기차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날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그동안 많은 부모님이 부모맞춤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하고 세례 받았다”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은 이번 기차여행에 꼭 함께해 달라”고 초청했다.

강희창 팀장(전도사역본부)은 “이번 부모맞춤전도여행이 기차 소리 ‘칙칙폭폭’이 ‘축축복복’으로 들리게 되는 행복한 추억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2-3215-3214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 5월 9~10일 온누리 가정주일

가정의 달 행사 및 가정예배 캠페인 실시

5월 9일(토)과 10일(일)은 ‘가정주일’이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킨다. 국내 온누리교회 13개 캠퍼스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가정’을 주제로 설교하고, 예배에 참석한 70세 이상 성도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 주차장, 서빙고 이천만광장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가족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한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설치한다.

‘최고의 가족 사랑은 가정예배의 실천입니다’를 주제로 가정예배 캠페인도 한다. 가정예배 가이드도 제공한다. 일상 가정예배, 대화식 가정예배, 전통 가정예배 등 세 가지 가정예배 형식 소개가 담겨 있다.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성도들의 간증도 볼 수 있다.

한편, 5월 10일(일)에는 차세대 야외행사가 열린다. 이날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서 바이킹,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 놀이 시설을 운영한다. CGN에서도 ‘차세대 이벤트’를 한다. 서빙고에서는 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양재에서는 추억의 선물 뽑기를 한다.

한편, 5월 10일(일)에는 차세대 야외행사가 열린다. 이날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서 바이킹,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 놀이 시설을 운영한다. CGN에서도 ‘차세대 이벤트’를 한다. 서빙고에서는 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양재에서는 추억의 선물 뽑기를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더멋진가족, 생명의 물이 되다

5월 16~17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5월 16일(토)과 17일(일) ‘더멋진가족, 생명의 물이 되다’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날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는 주일예배 특순, 홍보부스 및 포토부스 운영, 사진전 등을 한다. ‘더멋진챗버’가 특순하고, 홍보부스에서는 NGO 더멋진세상 소개, 후원 약정서 작성, 이벤트 등을 한다. 포토부스는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 설치되고, 사진전은 5월 8일(금)부터 17일(일)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원형홀에서 열린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 ‘2026 정신건강 세미나’

5월 19~21일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이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10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식사, 간식비 및 교재비 포함). 참석자는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1회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6 정신건강 세미나에서는 ‘정신’, ‘정서’, ‘통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진다. 1일 차 ‘불안은 죄가 아닙니다: 몸과 신경계로 이해하는 신앙의 회복’, ‘불안의 스펙트럼 치유: 영성체험을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교과),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강의한다. 2일 차 ‘애착과 불안: 안정애착으로의 여정’, ‘우울과 자살의 경계에서 만나는 하나님’ 등을 주제로 유현주 교수(Soh 심리영성센터 소장), 안해용 목사(목회자마음돌봄센터 센터장) 등이 강의한다. 3일 차 ‘몸은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 등을 주제로 정주호 대표(한동대학교 글로벌 리더십학부 겸임교수),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등이 강의한다.

한편, 책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두란노)가 5월 15일 출간된다. 이 책에서는 불안에 대해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성경적으로 통찰한다.

문의: 02-3215-3532



##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영락교회 본당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가 다음세대와 교육 회복을 위한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를 개최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눅 23:38)를 주제로 5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한국 교회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다음세대와 이 땅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다.

이날 기도회에는 이재훈 위임목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함승수 교수(명지대학교)가 강사로 참여한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주최

하고, 기독교학교육연구소,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한국기독교학교육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 2부에서는 ‘〈한국 교회 성도 유권자 인식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오후 12시 50분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층에서 진행된다. 함승수 교수가 〈한국 교회 성도 유권자 인식 조사〉, 박상진 교수가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원선교 및 교육부 교역자, 기독교 학부모 등 관심 있는 성도들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675-3927(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 본문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매우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시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본문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은 세 부분이 샌드위치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5절이 예수님의 가족이 도착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려 찾아다녔습니

다”(마 3:21). ‘붙잡으려’라는 표현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강제로 데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조차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던,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 오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힘입어 일하는 ‘사단의 종’이라고 매도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족들의 인간적인 사랑에 떠밀려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반문은 가족에 대한 차가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아들입니다. 만아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고,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하고,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가족과 함께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단호하셨고, 가족의 만류를 거절하셨습니다.

#### 가족을 ‘하나님의 자리’ 아래에 두고자 하셨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상대화하신 것입니다. 가족을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보다 절대적인 자리인 하나님 자리 아래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때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가족을 향한 사랑조차 그 앞에서는 미움처럼 보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것이 우상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놓일 때만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면 무너지게 되고, 가족을 하나님 아래 둘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 영원한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서 있는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마 3:33~35).

여기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때 항상 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의도적인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족 선언입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 ‘내 가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혈통이나 출신, 신분이나 나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오직 하나의 표지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들입니다. 참된 영적 가족 관계는 같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 역사에서 많은 사람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후 3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순교한 젊은 귀족 여인 ‘페르페투아’를 기억합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귀족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가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처형되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디트리히 본회퍼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국가나 어떤 전통 중에서도 하나님 부르심의 순간에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게만 시선을 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정양순 사모님이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배반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냉정해 보이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영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대하셨을 때와 동일한 태도였습니다. 가족의 표지가 핏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관계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족의 권한을 갖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원한 가족은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입니다. 이 땅에서 혈육은 한시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너머의 가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며, 혈연의 가족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 가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가족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시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초 단위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관계입니다.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세포로 창조된 것입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살아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단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세포와 같은 관계입니다.

가족의 친밀함은 같은 식탁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은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가족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식탁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돈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혹은 가족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 형제자매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동료처럼 여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냉정해 보이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따뜻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의 범위를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혈육만으로는 외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들을 만나 외롭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가족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시 27:10).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십니다. 같은 하나님으로, 같은 십자가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히 2:11~12). 예수님이 만행이 되어 주시고, 만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증명서가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자리에 설 때,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는 영적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기독교인들이 투표해야 할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왜 투표해? 정치는 더럽고, 누가 공직에 있든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나님이 언제나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정치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베네수엘라나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삶이 왜 세계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르고, 더 나은지에 대해서 종종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는 우리가 늘 경험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잊어버리기 쉽다. 역사 속 대부분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추정에 따르

면,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다. 자유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우리는 정치적 ‘신탁기금의 수혜자’와 같다. 자유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책임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이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만큼만 좋은 상태로 남겨 둘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정부도 다른 모든 것처럼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교체하지 않으며, 집의 누수를 고치지 않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 집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둘러싸인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유지와 관리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배우고, 투표하고, 공직에 출마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들은 자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을 수행한다.

이런 행동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방식이다.

셋째, 잘 관리되는 정부는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 사상은 중립적이지 않다. 사상은 결과를 낳는다. 나쁜 사상은 피해자를 만든다. 나쁜 사상이 정부 안에 자리 잡으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를 잘 돌보는 것은 단지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투표한다면 죽었을 아기들이 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투표한다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투표한다면 이전에는 없던 정의가 실현된다. 이러한 결정들은 바닐라 맛이나 딸기 맛이나 같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사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도록 이 땅에 두셨고, 그 안에는 정부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투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선물이다. 선물을 낭비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태도다.”

“정부도 다른 모든 것처럼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잔디를 깎는 것과 같은 이유로 투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잘 관리되는 정부는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 투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더 나아지게 할 기회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포스트모던

포스트모던 시대: 해체된 진리, 진리가 된 언어



신동일 집사  
(서초A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나는 내가 선택한 나다.”

이 선언은 지금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문법이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는 스스로 진짜 현실을 찾아 나서며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개척한다.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는 타인의 기대를 떨쳐내고 진정한 자아를 선포한다.

BTS는 이렇게 노래한다.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Love myself.”

우리는 이러한 자기 창조의 서사를 당연한 것으로 소비하고 환호하며 내면화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묵은 철학이 대중의 언어로 번역된 결과다. 장 폴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며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의미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한 인본주의는 그나마 이성과 생물학적 토대 위에 ‘보편적 인간’을 상정하려 했지만, 포스트모던 전환은 그런 토대마저 언어적 산물이라며 해체한다. 이제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라는 재료로 조립하고 세팅을 한 건축물처럼 다뤄진다.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질문은 힘을 잃고, “그것이 누구의 진리인가?”라고 서로에게 자꾸만 묻는다.

이 논리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인간 정체성’ 영역에서 나타난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

더 수행성(performativity)’ 담론에 따르면, 젠더는 언어 행위를 반복하며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수행적 효과’일 뿐이다. 우리가 남자답게 혹은 여자답게 행동하고 말하는 반복적인 ‘수행’이 젠더를 만든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특정 역할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그 역할이 자신의 실제 인격이라고 믿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관점이라면 창조 질서가 부여한 생물학적 성(sex)은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불림으로써 여성이 된다’는 이들의 논증은 창조

“녹록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만 소망한다.”

주가 인간의 몸에 새겨놓은 존재론적 토대마저 문화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오만한 선언이다.

동시에 이는 오만한만큼이나 모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 자신을 끊임없이 정의하고 관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수행 중인 정체성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수행’이 멈추는 순간 ‘나’는 사라질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진리와 정체성을 해체했다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려고 한다. 인간이 언어의 산물이라면 기술도 그런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뒤따른다. 인간을 동물, 자연, 사물, 기

계와 동등한 하나의 ‘행위자’로 격하하며 ‘인간만의 고유함’을 낡은 편견으로 몰아세운다.

해체의 욕망은 중단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은 설 자리를 잃는다. 누구나 거창하게 해석하고 주장하지만, 그 무엇도 권위를 갖지 못하는 황량한 광장, 거기가 우리의 지성이 서 있는 곳이다.

포스트모던 사유는 기존의 집을 부수는 망치 역할에는 능숙하지만, 우리가 거주할 집을 지어주지는 못한다.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면 서도 여전히 ‘사회적 정의’와 ‘윤리’를 외치는 모습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형용모순을 보여

여줄 뿐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외치다가도, 막상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절대적인 공정함’과 ‘보편적 인권’에 호소한다. 진리의 지지대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모순적이고 유약한 논증만 넘쳐날 뿐이다.

이 혼란 앞에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한다. 인간이 언어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언어만이 곧 실재인 것도 아니다.

“...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히 1:3).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불드고 있는 근본 질서다. 진리는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온 것

이다. 실재는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탱되는 견고한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뉘니다”(히 4:12).

인간은 말씀을 마음대로 재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해석 당하고 불림을 받는 존재다. 그 말씀이 몸으로 왔으며(요 1:14), 그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육신의 장소다.

세상이 끊임없이 속삭인다.

“네가 너를 정의하라.”

“너의 언어를 스스로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끊임 없이 수행하며 피로에 찌든 연기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언어로 내 삶을 얼마든지 조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세우실 때 비로소 내 삶의 지평이 열릴 수 있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숨어버린 인간을 향한 인격적인 찾으심이었다. 그 부름은 피할 수 없고, 해체될 수 없으며, 무엇으로도 교체될 수 없다. 포스트모던의 안개 속에서 ‘나는 기록된 말씀’과 ‘육신이 되신 말씀’을 구한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분의 부르심이 야말로 나의 존귀한 정체성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녹록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만 소망한다.

# 개인, 가정 그리고 마을의 변화!

## NGO 더멋진세상이 만드는 ‘더멋진마을’

NGO 더멋진세상(이하 더멋진세상)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 한 마을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가 우물을 파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교육도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고, 마을을 가꾸도록 돕는다. 더멋진세상이 전 세계 곳곳에 ‘더멋진마을’을 만들고 있다.

개인과 가정, 마을의 변화로 이어지는 더멋진마을이 더 많아질수록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도 많이 생긴다. 더 많은 곳에 ‘더멋진마을’이 세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오는 5월 16일(토)과 17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식’을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CHE(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변화된 필로메네(왼쪽), 에블린(가운데), 클레멘틴(오른쪽).

오늘도 우리는 배달 앱을 스크롤하고, 아침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쇼핑물 장바구니도 채운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어느 마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고,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까 봐 밤새 떠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도 있다.

더멋진세상은 늘 그들을 찾아간다. 16년 동안 묵묵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어서는 법을 알려줬다. 르완다, 말라위, 스리랑카, 모리타니의 극빈곤 가정 지원, 조기 아동발달(ECD)센터 운영, 여성 경제 교육, 보건 및 위생 교육을 이어왔다.

더멋진세상에서는 이 사역을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개발선교)’라고 부른다. 복음 전도와 삶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총체적 선교 방식이다. 현지인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외부 지원이 끊겨도 마을 스스로 굴러가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변화된 한 사람이 다음 이웃을 변화시키는 ‘배가(倍加)’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 르완다 나루상게(Nyarusange)와 가혼도(Gahondo) 지역에서도 ‘CHE’ 방식으로 ‘더멋진마을’을 세웠다. 그곳에 사는 필로메네, 에블린, 클레멘틴의 변화가 그 성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개인을 성장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마을 전체가 변화했다.

### 배가(倍加)를 직접 몸으로 실천

무간기라 필로메네는 세 아이의 엄마다. 남편이 있지만 가게를 꾸릴 형편이 안 된다. 주로 농사일했는데, 수확은 입에 풀칠하기도 모자

랐다. 더멋진세상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하루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났다.

“더멋진세상을 만나기 전 제 삶은 정말 고달팠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수입도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더멋진세상이 처음 건넨 것은 자금이였다. ‘극빈곤 여성 가장 지원(UPG) 사업’에서 지원한 자금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씨앗이었다. 필로메네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가족의 건강보험료(르완다 공공 건강보험 Mutuelle de sante)를 냈다.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내고서야 비로소 불안이 건넜다.

남은 돈으로는 염소 한 마리를 샀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시작이었지만, 그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다.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았다. 세 번째 지원 단계에서는 닭도 들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키웠고, 그녀 스스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일구었다.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고기 반찬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염소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없었는데, 지금은 가축을 기르는 주인이 됐습니다.”

기적이 그치지 않았다. 필로메네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도 나눴다. 자기 염소를 더 가난한 이웃에게 빌려주고, 그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웃이 갖도록 했다. 더멋진세상이 추구하는 배가(倍加)를 직접 몸으로 실천한 것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이제 그녀가 다음 사람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

###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들

무투이마나 에블린의 집에서는 한때 돈 이야기만 나오면 곧 싸움이 시작됐다. 에블린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남편이 일용직 막일로 버는 돈으로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빠듯했다. 집세가 밀리면 쫓겨날까 싶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만을 뜻하지 않았다. 가정에 긴장이 쌓였고, 부부 사이도 자주 금이 갔다.

더멋진세상의 도움이 그 틈을 메웠다. 에블린은 지역 지도자의 소개로 더멋진세상 ‘극빈곤 여성 가장 지원사업(UPG)’에 참여했다. 1차 지원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2차 지원금으로 물건을 채워 가게를 키웠다. 3차 지원금은 저축 모임(tontine)에 넣어 목돈의 기반을 마련했다.

더멋진세상이 에블린에게 준 것은 금전만이 아니었다. 절약과 저축,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가정 화목에 관한 교육도 해줬다. 그 교육이 그녀의 생각과 삶을 바꿔놓았다.

“극빈곤 여성 가장 지원사업(UPG)에서 ‘번 만큼 먹어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장사해서 번 이익 안에서만 지출해야 하고, 원금이나 자본을 깎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장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문장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에블린이 성실하게 가꾼 작은 가게가 어느덧 자리를 잡았다. 매달 집세를 낼 정도의 수입도 나온다. 아이들 학비는 남편과 함께 감당하고 있다. 그녀의 집에 가스버너와 태양광 전등도 생겼다. 예전에는 나무를 주워다 불을 피워서 밤이면 어두컴컴했는데, 이제는 밤에도 가족

과 식탁에 둘러앉아 얼굴을 맞댈 수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들이 에블린과 가족의 하루를 바꿨다.

### 염소 한 마리, 작은 가게 터, 재봉틀

니란사비마나 클레멘틴의 사례는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한 마을 전체가 달라진 기적을 보여준다. 더멋진세상을 만나기 전 클레멘틴은 남의 밭에서 농사일을 거드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800~1,000 프랑, 한국 돈으로 천 원도 되지 않는 돈이다.

2022년, 더멋진세상이 클레멘틴이 사는 마을에 왔다. 마을 어귀에 구호품을 받으러 온 주민이 몰려들었다. 그 속에 클레멘틴도 있었다. 더멋진세상은 보통의 구호단체들과 달랐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두고 물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 전기, 학교, 교회 등 주민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었다. 더멋진세상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마을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클레멘틴은 더멋진세상에서 운영하는 재봉 기술 교육에 참가했다. 그리고 기술을 익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마을에 우물이 생겼고, 3살짜리 아이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세워졌다. 주민들은 저축 모임을 통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작은 가축을 사기도 했다. 마을 이곳저곳에 희망의 꽃이 싹을 틔웠다.

“더멋진세상이 오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굶은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제 삶과 마을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받은 도움을 기억하면서 저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마을을 더 멋진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선택지가 없는 상태일지 모른다.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 아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시키는 것, 밤에 불을 켜지 못하는 것 등 꼭 필요한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더멋진세상은 지난 16년 동안 그 선택지를 하나씩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 귀한 일을 수많은 후원자가 함께하고 있다. 이름 모를 후원자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곧 지구 반대편 어느 마을의 염소 한 마리고, 작은 가게의 터이자, 재봉틀이다.

후원 문의: 02-2271-2246



사진은 사랑챔버 5중주팀이 'Papagenohuis'에서 해외 첫 유료 공연을 하는 모습.

## 사랑챔버 5중주팀 연주여행

###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SarangArirang' 공연

사랑챔버 5중주팀이 지난 4월 23일(목)부터 5월 3일(일)까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SarangArirang (사랑아리랑)'을 주제로 연주여행을 했다. 이예림(바이올린), 이관태(비올라), 김희웅(첼로) 단원과 피아노 봉사자 이지은(사랑챔버 반주자), 사랑챔버 지휘자 손인경 권사는

가 참여했다.

사랑챔버 5중주팀은 파리복음주의침례교회, 파리장로교회, 헤이그이준기념교회 등을 방문해서 K-Festival, 주일예배 특순, '809 Platform' 인터뷰, 'SarangArirang' 간증콘서트 등을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예술센터 'Papagenohuis(파파게노

하우스)'의 'Sunday Concert Series'에 초청돼 해외 첫 유료 공연을 했다.

사랑챔버 지휘자 손인경 권사는 "이번 연주여행은 단원들이 전문 음악인으로 인정받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창단자로서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모두 함께 어우러진 축제

### 발달장애인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6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를 지난 4월 24일 개최했다. 온누리복지재단과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 및 장애인사역본부가 함께 주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場)이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 이용자와 가족, 온누리교회 성도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뮤지컬 배우 정선아, 가스펠 보컬밴드 크룩스, 래퍼 휘타가 공연을 선보였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이용자와 서울 프로비던

스 학생들이 연합 합창도 했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황유정 이용자는 "올해는 프로비던스 친구들과 함께 합창 무대를 준비하고 선보일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자로 참여한 이재학 형제(디케이화인케미칼)는 "봉사를 위해 방문한 콘서트에서 오히려 제가 큰 위로와 기쁨을 채웠다"고 고백했다.

##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 5월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참가자 모집을 5월 10일(일)까지 한다. CCM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지원서와 무반주 가창 영상(자유곡 1곡, 지정곡 1곡), 사진 파일을 이메일(cgnhealingvoice@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가창 영상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힐링보이스' 공식 홈페이지(healingvoice.cgnkorea.net)에서 지원서 양식과 지정곡 리스트 등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참가자 모집 종료 이후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8월부터 본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 1인을 선정한다. 방송은 9월에 시작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한다. 결선에 진출하는 TOP 7인에게는 CCM 음원 발매, CGN 국내외 투어 콘서트, CGN 후속 프로그램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 45기 드림어게인 참가자 모집

45기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으로 겪는 아픔에서 벗어나, 혼자의 삶과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혼한 남녀, 별거 중인 남녀, 소송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5월 23일(토)까지 전화(010-3489-2080)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자녀돌봄 4만 원). 타 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 와이무슬림(이슬람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와이무슬림(이슬람선교학교) 양재 토요오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23일(토)까지 아이스쿨(ischool@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와이무슬림(이슬람선교학교)은 이슬람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 체계의 발전 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302-3482

### 제이홈 '가정위탁세미나' 개최

#### 5월 17일 오후 5시 서빙고 꿈아이홀

온누리교회 입양위탁가정 모임 제이홈에서 '가정위탁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17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에서 열린다.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승섭 대리가 위탁 실무 전반을 안내하고, 송주영 권사(위탁 부모, 제이홈)가 위탁 부모의 고백과 은혜

를 나눌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10-5323-8947(이단열 총무), 010-3244-5596(유보연 총무))로 신청하면 된다.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NGO 메디엑세스 마하나임팀, 평택M센터에서 의료선교사역 실시

NGO 메디엑세스 마하나임팀이 지난 4월 26일(일) 평택M센터에서 의료선교사역을 했다. 봉사자 15명이 참여해서 내과 10건, 정형외과 15건, 신경외과 10건, 피부과 8건, 한방 6건 등 총 49건의 진료를 했다. 수기 치료 20건, 이미용 서비스 12건도 제공했다.

평택M센터는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등을 섬기는 공동체다. 몽골,

중국, 러시아, 한국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마하나임팀은 10년 가까이 평택M센터를 섬기고 있다.

마하나임팀과 함께 외국인 의료선교사역을 이어갈 젊은 의료진을 찾는다. 메디엑세스 홈페이지(www.mediaccess.kr) 하단 '봉사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70-7110

###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 홈페이지 및 QR코드로 참가신청

2026 크리스천 벤처창업대회 '어!벤처스' (대회장: 박기일 장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6 어!벤처스 서류접수는 8월 7일(금) 오후 6시까지다. 홈페이지(aventure.kr) 또는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로, 비영리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팀의 핵심 멤버

1인 이상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대회 설명회는 6월 25일(목) TIPS 타운 S1 팀스홀에서 열리고, 심사 및 선발은 8월 8일(토)부터 12일(수)까지 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선 진출 12팀을 선발하고, 최종 결선대회는 12월 5일(토) 개최한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 ■ ‘열린울타리’ 소속 위탁가정 간증



/ 김성곤 집사(열린울타리)

## 변화될 ‘수’의 세계

우리 부부는 열린울타리 사역인 보육원 아동 결연으로 ‘수(만 7세)’를 처음 만났다. 많은 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수를 가정 위탁하게 됐다. 지난 4월 30일, 수가 우리 가정에 왔다.

보육원 아이들은 단체생활이라는 환경의 한 계로 감정과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아이들과 다른 방향으로 강화된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장기적인 충족보다 눈앞의 만족을 빠르게 얻는 것이 그 아이들로서는 나름 똑똑한 선택이다.

수는 식사를 순식간에 마친다. 정량을 먹는 게 아니라 곧 허기가 찾아오고, 단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적은 양이지만 끝까지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수는 욕탕에 물을 받아 노는 것을 좋아한다. 며칠 전, 글루건을 가지고 놀다 손끝에 상처가 나 밴드를 하고 왔다. 욕탕 놀이를 하루 쉬자고 했더니, 이내 침대 모서리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말리지 않고 한참 바라봤다. 하고 싶은 것을 못 해서 자기 몸을 아프게 한 것이냐 물었더니 끄덕였다.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다른 집으로 옮기면 된다고, 평생 혼자 자면 된다고 했다. 미국으로 가면 된다고도 했다. 보육원에서 내

실 간 이동을 집을 옮기는 것으로 부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미국 입양이 가장 좋은 선택지처럼 들고 있구나 싶기도 했다.

몸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알려줬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욕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손가락 약속을 하고, 그날 욕탕 놀이와 목욕을 즐겁게 마무리했다.

수는 상처나 멍에 아프다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는다. 치료보다 관심을 끄는 재료로 여기는 것 같다. 한번은 일부러 딱지를 뜯어 피가 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아이를 품으면서, 수의 세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보육원에서 익힌 나름의 방식들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가기를 바란다.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함께 걸어가려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한다. 환경의 굴레를 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 통일선교학교 수료 간증



/ 김태연 성도(S브릿지)

## 통일의 시작, 이해

통일선교학교는 단순히 통일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으로 느꼈기에 더 오래 남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을 통해 통일은 제도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깊이 마음에 남은 것은 아웃리치로 방문했던 여명교회 탈북민 목사님이 들려주신 ‘고난의 행군’ 이야기였다. 꽃제비 아이들의 비극적인 현실은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인간다움을 잃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처절한 시간이 흘렀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전쟁, 고난의 행군, 탈북 과정에서 느낀 죽음의 공포와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외로움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던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배웠다. 더 들으려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원 방문도 매우 인상 깊었다. 함께 이동

하던 탈북민 권사님이 “친정 가는 길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하나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회복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상처를 꺼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을 그 순간들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희망도 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탈북민 성도들의 모습이 큰 울림이었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회복을 이루시고, 그 아픔마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통일선교학교가 통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어 줬다. 통일은 먼 미래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헌신해 주신 강사님들과 모든 스태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 ■ 양재 와이미션 107기 수료 간증



/ 노유정 자매(허브대학부)

##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

평소에는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유독 오랜만에 허브대학부 예배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설교 시작 전 광고 시간에 ‘와이미션’ 소개가 나왔다. C.C.C에 소속된 순장으로 ‘선교’라는 키워드가 반갑게 느껴졌지만, 사실 처음에는 큰 감흥이 없었다.

그날 설교 주제는 ‘예수님을 따른 작은 야고보’였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노력과 시간이라는 input(투입) 없이 세상에서의 결실이라는 output(결과)은 금방 무너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기도해 왔으면서도, 정작 아무런 실천 없이 머물렀던 나를 돌아봤다. 단체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와이미션을 떠올리게 하셨다. 애써 외면할수록 성령님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을 주셨다. 나는 결국 “아빠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을 때 승낙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 아빠가 너무 흔쾌히 승낙하셔서 그날 바로 와이미션을 신청했다. 와이미션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간 자리에는 언제나 은혜와 영적 채우심의 축복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었다. 걱정과 달리 매주 듣는 강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만큼 즐겁고 유익했다. 조원들과 나눴던 진솔한 신앙 고백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 수업 이후 작성했던 결단들은 다음 한 주 동안 C.C.C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기회로 이어졌다. 이전의 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에도 순종함으로 참여했다. 그렇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어디에 있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수강생이 와이미션에서 배운 선교를 삶이라는 실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 ■ 139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황숙현 권사(분당A공동체)

## 하나님 바라보는 삶 살기를

내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15년 전쯤인 것 같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머니’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문제는 결코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것은 자녀와 남편, 가정을 넘어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언젠가 꼭 두란노어머니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 군 복무까지 마친 상황이 됐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다시 두란노어머니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조금은 의아했다. 그리고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조금 알게 되었다.

나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반찬을 만들어 갔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에 새벽 2시에 귀가한 날에도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준비하고 잠들곤 했다. 그런 내게 두란노어머니학교가 물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많은 짐에 눌러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다시 세우려 한다.

나는 어머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아내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제는 모든 문제와 상황에 매여 고개 숙인 삶이 아니라,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저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직접 세우신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어머니이자 아내로 다시 서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맡겨진 가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칼럼

함께 달린 믿음, 하나로 모인 열매



이봉걸 장로  
(경기A공동체)

올해로 5회를 맞은 ‘달려라 풍당’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CGN 주관으로 진행되던 행사가 각 캠퍼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양재온누리교회는 “과연 우리가 이 행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 섰다.

그러나 곧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자”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고, 기도로 준비를 시작했다. 양재온누리교회 CGN 후원 운영위원회 팀장님을 중심으로 TF팀이 꾸려졌고,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CGN 후원과 풍당 앱 홍보, 차세대를 위한 미디어선교 비전을 담아내기로 했다.

CGN 주관이 아닌 양재온누리교회 자체 행사인 만큼 초기 예상 인원은 100명이었는데, 홍보가 시작되자 참여자가 빠르게 늘어 약 500명이 함께하는 행사로 확장했다. 인원이 늘수록 재정과 준비 부담도 커졌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채워주셨다. 기도로 섬겨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묵묵히 헌신한 봉사자들의 손길 속에서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됐다.

4월 25일 행사 당일, 하나님이 화창한 봄날을 허락하셨다. 참가자들은 찬양과 말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눴다. 준비운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걷기 여정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스탬프 티켓과 CGN의 상징색인 오렌지 보조 가방을 들고 교회 주변 코스를 걸었다. 교회 주변은 오렌지 가방을 든 성도들로 가득 찼고, 그 풍경이 하나의 장관을 이루

었다. 그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코스 곳곳에서 목회자들이 직접 스탬프를 찍어주며 성도들을 격려했다. 장애가 있는 성도, 반려견과 함께한 가정, 3대가 함께 참여한 가족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걷는 모습은 ‘순 달려라 풍당’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믿음의 축제임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표였던 후원금이 조기 달성됐다는 점이다. CGN의 인기 콘텐츠 ‘갯툰’ 1편 제작비 마련을 목표로 시작된 후원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채워졌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성과가 아니라 미디어선교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열매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경험했다. 또한 CGN이 다음세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미디어선교의 통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6~8).

이번 행사는 기도로 시작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마무리됐다. 화창한 봄날 함께 걸었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 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2026년 ‘순 달려라 풍당’은 마무리됐지만, 국경 없는 선교사 CGN의 미디어선교는 계속될 것이다. 함께 기도와 후원, 봉사로 동참해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권사칼럼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송주영 권사  
(제이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대학 입학 이후 바로 유치부와 유년부 교사를 시작했다. 결혼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었는데 딸 하나만 주셨다. 새벽기도회마다 아이를 구했는데,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 이후에는 입양을 생각했지만, 혈육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반대하신 시어른의 뜻을 존중해서 딸 하나와 유년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입양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2020년 딸이 대학에 합격하고 여유로운 중년의 삶을 누리던 어느 5월, 예배 중에 제이홀의 입양 홍보 영상을 보았다. 다시 입양에 대한 마음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편과 상의할 생각도 못한 채 예배가 끝나자마자 안 내데스크로 달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제이홀 담당자 오창화 집사님과 통화가 됐다. 당시 ‘정인이 사건’ 직후라 입양이 막혀 있으니 가정위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그때 나는 학대나 위기가정 아이들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서 위탁받아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를 처음 알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5세 여자아이가 연결돼 2023년 3월 2일 한 가족이 되었다. 큰딸은 아빠만 쏙 빼닮아 친엄마 맞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아이는 외모가 나를 많이 닮아서 유치원에 보내도 “늦둥이 낳아 키우느라 힘들겠어요”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이는 4살까지 보육원에서 여러 엄마(시설 담당자와 봉사자)와 지낸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보육원에서 폐쇄적으로 지내다가 2022년 처음으로 외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한 명인데 나는 왜 여러 명일까?’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를 낳아놓고 버린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엄마랑 살 거야”라는 말을 어느 날 갑자기 훅 내뱉기도 한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만 3년 동안 매일 <예수님이 좋아요> 교재로 큐티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어느 날 “엄마, 부처님 믿는 집에 갔으면 난 부처님을 믿어야 해?”라는 아이의 질문에 “그랬겠지. 절에 다니게 됐겠지?”라고 답하면서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나에게는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이다.

가정위탁으로 맡겨지는 아이들의 부모 대부분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불행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아이들이 매일 긴장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마음 편히 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가정위탁이 여러모로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함께 견뎌줄 동역자들이 있다. 우리 가정 역시 공동체 식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부부순원들이 아이의 이모와 삼촌이 되어서 신나게 놀아주고, 여성순 할머니들은 손녀 돌보듯 먹을거리와 선물을 시시때때로 챙겨주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금 우리가 딱 그렇게 키우고 있다. 온누리교회 더 많은 성도가 가정위탁이라는 축복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신앙에세이



김래위 목사  
(제주온누리교회)

제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다. 화창한 날의 제주 바다와 하늘은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다. 살랑이는 바람이 몸을 감쌀 때면 이 땅을 빛으신 창조주의 섬세한 손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러나 제주는 늘 온화한 얼굴만 보여주지 않는다. 여행으로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맑은 날씨는 오히려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을 만큼 드물다. 안개가 끼는 일은 다반사이고, 비가 쏟아지거나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많다. 눈이 아래에서 위로 내린다고 할 만큼 제주의 비바람이 거세다. 화창함과 거친 폭풍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것이 제주라는 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다.

자연 다큐멘터리에는 ‘관찰자 비개입 원칙’이 있다. 기록자는 대자연의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2018년 남극의 황제펭귄을 촬영하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예외적인 선택을 했다. 수십 마리의 펭귄이 깊은 눈 구덩이에 빠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제작진은 결국 삼으로 눈을 깎아 경사로를 만들었고, 펭귄들이 살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기록자가 자연의 흐름에 개입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그들의 아픔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된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학교에서 겪은 아픔, 직장에서의 갈등이 결국 관계의 문제로 이어진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소중했던 관계일수록 더 큰 오해가 쌓이기도 한다. 그 상처는 내면 깊숙이 번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까지 무너뜨린다.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때 문득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사람도 내가 만든 자연이다.” 그렇다. 사람 사이에도 날씨가 있다. 제주의 날씨가 그러하듯 환하게 웃으며 동행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태풍처럼 거칠게 충돌하는 날도 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느새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돌아나는 봄이 온다. 자연과 계절에 변화가 있듯 관계 역시 갈등과 오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 우리는 자연도, 삶도, 관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자들의 배를 뒤흔들던 거센 풍랑 앞에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미친 듯 날뛰던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일부라면, 우리 사이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분도 오직 그분뿐이다. 우리 사이의 갈라진 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비로소 잠잠케 하실 것이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서 그분의 돌보심을 구하기를 원한다. 광대한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의 작음을 알게 되듯, 광대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방식이 아닌 그분의 질서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배우게 된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조용히 내어 드려 보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가오는 풍랑의 조짐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